서울 서초구 방배동

박문덕 '한 세기 하이트진로' 1924개 기념 은화 축배

하이트진로

내년이면 주류업계 최초로 100년을 맞이하는 하이트진로는 2011년 하이트맥주가 진로에 흡수합병되면서 출범한 기업이다.

진로는 1924년 평안남도 용강에서 우천(友泉) 장학염이 설립한 진천양조상회로 시작됐다. 1966년 진로 주조로 이름을 바꾸고 1975년 진로로 변경했다.

하이트맥주는 일본의 대일본맥주주식회사가 1933년 조선맥주주식회사를 설립해 조선맥주를 대표 제품으로 팔았지만 이후 대표 브랜드를 크라운맥주로 바꿨고 1993년 신제품 하이트를 출시하며 1998년 사명을 하이트맥주주식회사로 바꿨다.

크라운맥주는 당시 경쟁 제품인 OB맥주와 크게 차이나는 2위였다. 1991년 월창 박경복 회장의 아들 박문덕 회장이 조선맥주 사장에 취임해 1위에 오르지 못하는 이유를 파악했다.

브랜드의 차이로 판단한 그는 1년간 임직원과 여관에서 숙식하며 개발에 몰두해

1993년 '천연 암반수'를 강조한 맥주 '하이트'를 출시하는데 성공했다.

하이트는 출시 3년 만인 1996년 국내 맥주 시장 1위를 차지하며 업계 판도를 뒤바꿨다. 성공에 힘입어 1998년 사명을 아예 하이트맥주로 바꾸는 결단을 내렸다. 2005년 8월에는 소주 회사인 진로를 인수해 사명을 바꾸면서 '하이트'를 포함한 '하이트진로'로 정했다.

2007년 하이트맥주와 진로의 수출부문을 통합해 해외사업본부로 조직을 확대해 본격적인 글로벌 행보를 시작했다. 최근에는 싱가포르에 신규 법인을 세우기로 결정하고 동남아 등 글로벌 소주 사업 영토를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싱가포르 현지 법인 HITEJINRO SG PTE. LTD.(가칭)을 설립을 위해 2025년까지 3600만 달러를 출자한다.

하이트진로는 꾸준한 개발을 통해 2019년 라거 특유의 시원하고 청량한 맛을 극대화한 테라를 출시했고, 올해 4월에는 부드러움과 강렬한 맛을 동시에 담은 켈리를 선보여 좋은 평을 받기도 했다.

지금의 하이트진로로 키운 박문덕 회장은 박경복 선대 회장의 차남이다. 1976년 조선맥주에 입사해 상무, 전무, 부사장을 거쳐 아버지를 이어 1991년 3월 대표이사에 올랐다.

1993년부터 하이트로 사세를 확장한 뒤 2011년 하이트맥주와 진로의 합병으로 탄생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 회장에 취임했다.

2019년 3월과 4월 각각 출시한 '테라' '진로이즈백'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국내 소주·맥주 시장 동시 석권이란 진기록을 세웠다. '진로이즈백'은 복고 열풍을 활용해 소주 업계 최초로 두꺼비를 활용한 캐릭터 마케팅을 도입했다. 출시 7개월 만에 1억 병 이상 팔렸고 4년간 누적 판매량은 15억 병에 이른다.

누적 판매량 387억 병을 기록한 국내 소주 점유율 1위인 참이슬도 대표 제품이다. 최근 참이슬은 MZ세대와의 소통을 위해 캐릭터 활용 에디션 제품 출시부터 이종업계와 다양한 협업을 펼치고 있다. 소주 최초의 뮤직 페스티벌 '이슬라이브페스티벌' 개최 등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활동도 눈여겨 볼만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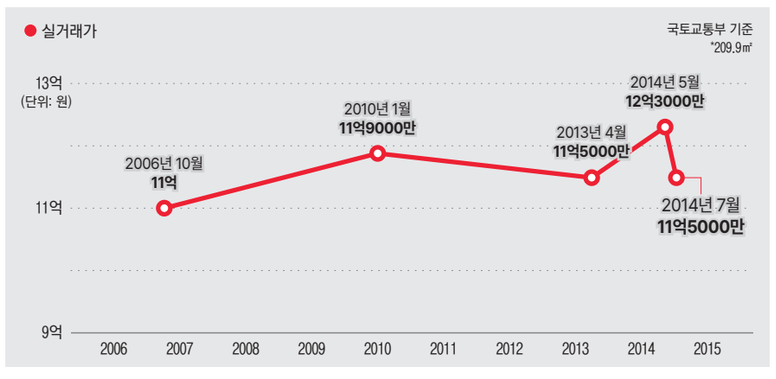
한편 하이트진로는 내년 회사 창립 100년을 맞아 국내 100년 기업 첫 100주년 기념 은화를 발행한다. 진로의 상징인 두꺼비 캐릭터를 활용한 디자인이다. 1924년 공식 창립일을 기념해 1924개만을 제작한다. 100주년 기념 은화는 11월12일 자정까지 금은화 쇼핑몰인 투데이를 통해 단독 예약 판매한다.

하이트진로를 대한민국 대표 주류기업으로 키운 박 회장의 부동산 재력이 화제다. 그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서래마을 인근에 토지 한 필지(사진)를 소유하고 있다. 대지면적 555㎡(약 167.88평) 규모로 방배중이 가까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도보 5분 안에 서래마을 카페거리도 있어 입지적 장점이 좋다는 평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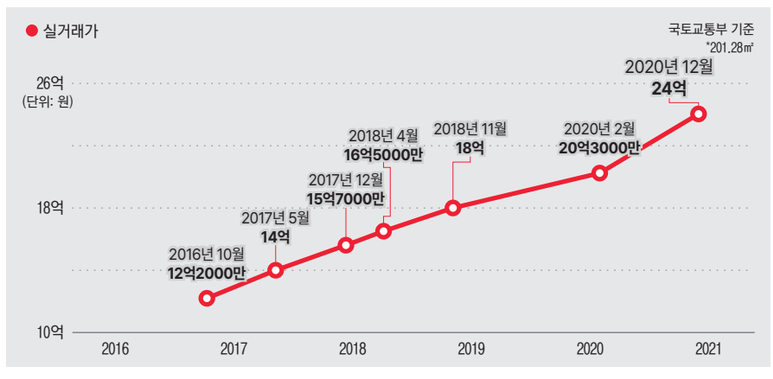
원래 이 토지에는 박 회장 소유 단독주택이 있었지만 철거된 상태다. 2023년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당 990만5000원으로 555㎡로 환산하면 토지 가격만 54억 9727만5000원에 이른다.

이동원 기자 dwlee@skyedail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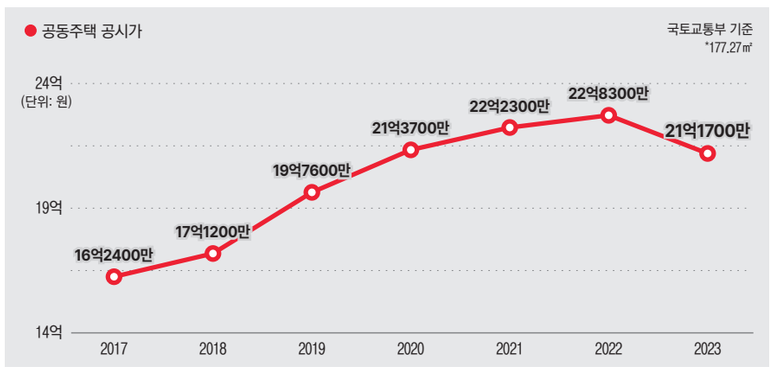
상지리츠빌1차(서울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방배아트힐(서울 서초구 방배동)



리가든7차(서울 서초구 방배동)



김호현 현)로사케이 대표이사

김호현 로사케이 대표이사는 미국 보스턴대를 졸업하고 고려대 경영대학원 경영전략전공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졸업 후 전자 처방 관련 IT솔루션, 신용카드 사기방지 솔루션 등 다양한 사업을 했지만 실적이 악화돼 접었다. 창업에 재도전해 리서치 회사 피케이엔와이즈를 설립한 뒤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 등 글로벌 리서치 업체와 제휴하며 알짜 정보를 제공해 성공했다. 2015년에는 김희애, 한혜진, 김혜수, 소녀시대 유리 등 연예인들이 즐겨 드는 컨템포러리 핸드백 '브랜드 '로사케이(rosa.K)'를 내놓았다. 명품의 첫째 조건은 품질이고 걸맞은 소재를 써야 한다고 생각해 이탈리아 스페인 등 고급 가죽을 엄선해 들여왔다. 한편 로사케이는 국내외 사업을 강화하며 해외 진출을 재개한다. 올해 4월 중국 유통 기업인 메이화와 디스트리뷰터 계약을 체결하고 250만 달러의 납품 계약을 확정했다. 메이화는 제이준코스메틱, 널디 등을 유통한 그룹이다.

정운찬 전)국무총리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경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마이애미대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 프린스턴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컬럼비아대에서 교수로 강의와 연구를 하다가 1978년 귀국해 서울대에 임용돼 경제학부장, 사회과학대학장을 거쳐 제23대 총장에 선출됐다. 이후 제40대 국무총리를 지냈고 동반성장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맡아 '동반성장'이라는 화두를 알리는 데 힘썼다. 현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을 맡아 '동반성장 전도사'로 활동 중이다. 주요 저서는 '도전받는 한국경제' '금융개혁론' '경제학원론' '통계학' '중앙은행론' '거시경제론' '한국경제 죽어야 산다' '예금보험론' '한국경제 아직 늦지 않았다' '화폐와 금융시장' 등이 있다. 두산 베어스의 팬으로 유명한 그는 2013년 야구 관련 칼럼을 연재했으며 '야구 예찬'이라는 책을 냈다. 2017년 제22대 KBO 총재로 추대되었다.

정준하 현)개그맨

정준하는 고등학교 졸업 후 용돈이나 벌자는 생각으로 MBC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1991년MBC '경찰청 사람들' 연출보조(FD) 일을 하다 1993년 당시 최고 인기가수인 혼성그룹 '룰'의 매니저 일을 맡았다. 이후 이휘재의 매니저를 맡았지만 이휘재의 군 입대로 그만두고 1995년 MBC '테마극장' 제작진 제안으로 고정출연하게 됐다. 여기에서 개장수, 도둑, 때밀이, 폭주족 등 주로 단역 전문배우로 활동했다. 1997년까지 배우 생활을 하다가 본격적으로 방송에 나가고 싶어 MBC 특채 개그맨이 됐다. 1999년 MBC '여기는 코미디 본부'에서 대중에게 눈도장을 찍었고 2003년 MBC '코미디 하우스'의 코너 '노브레인 서바이버'에서 익살스러운 바보 연기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이후 MBC '무한도전'에 합류해 인기 스타 반열에 올랐다.

맛깔나는 우리동네 부동산

코레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연말 계획 확정… 2028년 완공

서울 용산구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에 대한 계획을 연말에 확정하고 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은 용산역 인근에 옛 용산정비창 부지 약 50만㎡(코레일 소유 70%·국공유지 30%)의 대규모 땅을 국제업무와 주거·공원녹지를 갖춘 융복합 지구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2007년에 민간 주도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 시행사 부도로 무산돼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었고 2018년 5월 코레일이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했다.

이후 사업 재추진에 대한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 협의 속에 2020년 12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코레일은 공공 주도의 개발을 위해 2021년 5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에 대한 계획을 연말에 확정하고 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시작으로 사업에 착수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코레일

공공기관인 코레일과 SH가 각각 70%, 30%씩 해당 부지의 지분을 확보하고 사업 시행자로 나서며 안정된 체계로 사업 재추진을 준비해 왔다.

현재 코레일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인허가권자인 서울시와 사업 단계별로 협의를 거치고 최종 계획을 검토하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 자문단 구성 등 성공적 개발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구체적 사업계획은 향후 서울시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개발 전문가로 이루어진 MP단(Master Planner)의 자문을 받고 전문 업체의 분야별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코레일·SH공사로 이루어진 관계기관 실무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코레일은 사업시행자로서 올해 말 △구역지정 제안을 시작으로 △개발계획 고시 △실시계획인가(지구단위계획 확정) 등 인허가를 추진할 계획이며 2025년 하반기부터 기반시설 공사 및 토지공급을 착수해 2028년까지 기반시설 준공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코레일의 재무구조 개선과 철도안전투자의 구심점이 될 중요한 사업이다"며 "서울 중심지를 장기간 점유하고 있던 정비창 부지를 국제업무지구로 탈바꿈해 서울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코레일의 지속가능한 수익모델을 동시에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다른 역세권 부지에서도 도심 개발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선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실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정도현 기자 dhjung@skyedaily.com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3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경기 수원·하남·남양주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올해 4월 말부터 국토교통부와 함께 운영해 온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30일부터 경기 수원 및 하남·남양주 지역을 대상으로 11월1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 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을 시작으로 서울 강서·강원 원주·전남 나주·부산 등 전국으로 지역을 확대해 운영해왔다.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법률 및 심리, 금융·주거 지원 상담 서비스를 오후 12시부터 8시까지 제공하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예약을 통한 자택 방문서비스도 제공한다.

정도현 기자 dhjung@skyedaily.com